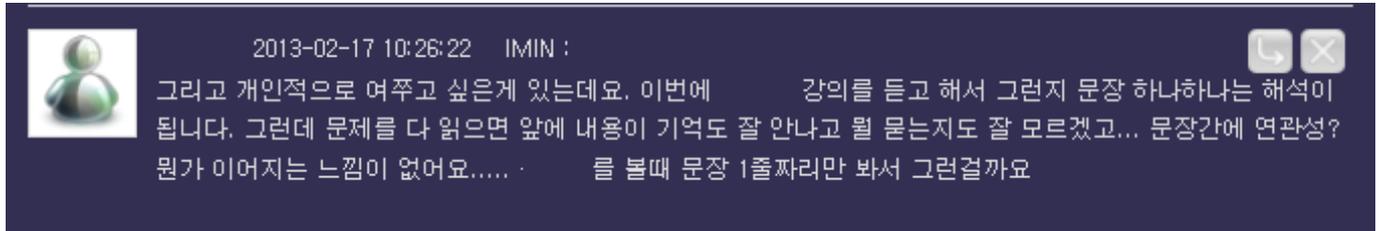


## 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이 읽히지 않는 이유는?

-승동-

가끔가다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 질문들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질문의 예시:



(강의명 및 아이디는 제가 지웠습니다 ^^ 특정한 강의를 디스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또 이와 같은 질문들을 제가 몇 번 받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글이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해석'과 '내용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두 가지 중 하나가 부족한 것일수도 있고, 두개 다 부족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1) **해석**: 일차적으로 해석은 영어영역이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입니다. 만약 어떠한 책이나 강사가 이러한 해석을 중요치 여기지 않는다면 수험생들은 효용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재고 해보아야 합니다. 시험장에서는 알고 있는 해석능력을 극대화시켜야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해석능력 자체를 키워야 합니다. 본인의 등급에 따라 해석능력을 무엇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복습하고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적용의 소재는 저는 EBS 교재를 추천하는 편이지만, 본인이 다른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EBS는 시험범위이기 꼭 푸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2) **내용 이해**: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감에 따라, 평가원에서는 내용 자체의 난이도를 높혀버리기 시작했습니다(본격적으로는 11년도부터). 물론 영어영역은 국어영역과는 다르게 추론의 정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주제 혹은 글에서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서 빈칸을 출제해도 충분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높히는 것+매력적 오답'으로 변별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내용의 이해는 지문에 따른 '문제 해결 전략'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정확한 해석을 키워야 합니다. 마치 언어영역을 풀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수리영역을 풀 때 각 단원마다 기출로부터 얻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처럼요.

## 2. 만약에 해석능력과 내용 이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문제 풀이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기출문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elementary biology textbooks help to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of what perception entails.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do the eye and camera have anything in common. Both eye and camera have a lens that focuses light rays from the outside world into an image, and both have a means of adjusting the focus and brightness of that image. Both eye and camera have a light-sensitive layer onto which the image is cast (the retina and film, respectively). However, image formation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s seeing. \_\_\_\_\_ obscure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which is that the camera merely records an image, whereas the visual system interprets it.

[3점]

- ① Apparent differences in the focusing power of a lens
- ② Superficial analogies between the eye and a camera
- ③ Contrasts in light adaptation between the retina and film
- ④ Misunderstandings of image formation in the eye and a camera
- ⑤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mag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이 문제는 13년도 수능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등을 통해 둘러본 바로는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에 틀렸다고 합니다.

### 1: 해석이 안될 경우

->문제를 못 풉니다. 간단하죠. Game set.

### 2: 문제 해결능력이 없어서 글을 이해 못했을 경우

->문장은 해석되지만, 이 지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서: "물리적인 측면에서만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또한 이런 유형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구요.

어쭙잖게 해석은 되는데 무엇을 골라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결국 뉘앙스로 접근하게 됩니다...운이 좋으면 맞지만 그렇지 않으면 틀립니다.

### 3: 매력적 오답에 걸린 경우

사실 1과 2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하지만 오답을 내는 방식 중 하나인 '빈칸 혹은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단어'로 유도한 함정(obscure를 무시한 경우) 4번을 고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해석력을 키우시면서 수능시험장 Killer들을 맞추기 위해선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 3. 해석력을 키우고, 지문에 따른 논리적 접근을 하고 공부할때에는 분석력을 키우자.

해석력은 당연히 키워야 하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유형에 따른 접근법들을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접근법들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셔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한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을 읽을때 꼬이지 않고 글이 짝짝 읽힐 것 입니다.